

웅진코웨이, 탄소경영보고서 발간

웅진코웨이(대표 홍준기)는 연간 탄소배출량을 담은 탄소경영보고서를 3년 연속 발간했다고 7월19일 발표했다.

탄소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웅진코웨이는 본사, 공장, 연구소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800여개 지국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포함해 2011년 약 1만205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다.

또한 국내 처음으로 탄소경영을 통해 얻은 친환경제품 매출과 원가 절감 등 재무적 성과도 공개했다.

2009년 탄소성적표지 제도 도입 이후 8개 제품이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획득했고 전체 매출의 평균 30%를 견인했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33개의 협력기업과 탄소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해 협력기업 탄소정보관리를 위한 IT 시스템 운영,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감축활동 지원 등을 통해 협력기업의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6월에는 지식경제부와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2012 대한민국 녹색경영 대상>에서 종합대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화학저널 2012/07/19>